



안개 자욱한 중외공원

대한(大寒)인 20일 우산을 쓴 시민들이 안개가 자욱한 광주시 북구 중외공원에서 산책하고 있다. 낮 최고기온 13.8도를 기록한 이날 밤 8시까지 광주 9.5mm, 완도 22mm의 비가 내렸고, 짙은 안개로 광주에서 김포와 제주를 오가는 항공기 6편이 결항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농협조합장 돈선거 되풀이 우려

### 전남 작년 위법 35건...올 상반기 46곳 줄줄이 선출

### 불·탈법 판칠 땐 지방선거 악영향...사정당국 주시

전남도 내 농협조합장선거가 오는 3월까지 집중적으로 치러질 예정이어서 선거관리위원회와 사정당국이 예의주시하고 있다. 예전의 조합장 선거처럼 금품·향응 제공 등이 되풀이될 경우 다가올 6·2지방선거까지 불법·타락 분위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농협은 이에 따라 자체적인 선거부정 감시에 나서는 등 비상이다.

20일 농협 광주·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이달부터 3월까지 전남에서는 156개 조합 가운데 56개 조합이 조합장을 뽑았거나, 선출할 예정이다. 전남 지역 선거 예정 조합은 21일 삼호, 영암, 군서 등을 비롯한 모두 43곳이며, 13곳은 지난 1일~19일 사이에 조합장을 새로 뽑았다. 광주는 대천, 본량,

평동 조합장 선거가 2월에 실시된다. 이에 따라 광주시·전남도 선관위는 농협 조합장 선거 감시를 위한 특별 대책을 수립하고 집중적인 단속에 나서고 있다. 과거 농협 조합장 선거가 금품 살포 등 불·탈법 사례가 잦았고, 아직도 돈 선거가 근절되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특히 조합장 선거의 불·탈법 행위가 오는 6·2 전국 동시지방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비방·흑색 선전행위, 공무원의 불법선거 관여 행위, 금품선거 등에 대해서 특별감시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과 경찰도 조합장 선거 지역을 중심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등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토착비리 척결 차원

에서 대응한다는 복안이다.

전남도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 지역에서 치러진 70개 농·수·축협 조합장 선거에서 고발 8건, 수사의뢰 10건, 경고 17건 등 모두 35건의 위법 행위가 적발됐으며, 이 가운데 2곳의 조합장은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농협 전남본부는 이에 따라 조합장 임후보 예정자 160여 명을 모아 공명선거 실천 결의를 하는 등 깨끗한 선거 운동을 벌이고 있다. 또 공안부 검사, 선관위 관계자들을 강사로 초청해 특별 교육을 하기도 했다.

시·군 지부 및 해당조합도 선거전 답팀을 설치하고 공명선거 결의대회·부정선거 신고포상금제 도입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농협 목포신

안시군지부(지부장 박종수)는 지난 19일 오는 29일 조합장 선거가 치러질 일자, 장산농협의 후보자 9명이 참석할 가운데 공명선거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농협 전남본부 관계자는 "올해는 기필코 공명정대하게 선거를 치러 농협에 대한 불신을 씻어내겠다"며 "유권자들의 의식전환이 절실한 만큼 공명선거 분위기 정착에 적극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윤영기·최관일기자 penfoot@/서취재본부=조완남기자 wncho@

학교설립 56주년 (1954.~2010)  
믿음, 소망, 사랑으로  
커뮤니티 세상을 만드는  
젊은 지성인의 교육의 요람!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 금호타이어 가동 중단 위기

### 채권단 원료비 집행 불허...곡성공장 이틀째 감산

워크아웃 실사 중인 금호타이어 곡성공장이 원료 부족으로 감산에 들어갔다. 채권단이 노조측에 백지 구조조정 동의를 제출을 요구하며 원료 구입에 필요한 자금집행을 미루고 있어서다. 원료를 구입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질 경우 생산중단이라는 최악의 사태가 우려된다. <관련기사 8면> 20일 금호타이어와 채권단에 따르면 곡성공장은 19일부터 주·야간조 등 3교대로 이뤄지는 트럭·버스용 타이어 생산 라인 가운데 야간 공정을 중단하는 등 24시간 가동 체제를 16시간으로 변경했다. 타이어 제작을 위한 원재료 공급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생산량을 줄인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자금집행 허가권을 갖고 있는 채권단은 금호 경영주의 사채 출연과 노조의 워크아웃 협조 동의를 요구하며 원재료 구입비

용 집행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호타이어는 지난해 12월 임금과 1월 상여금 200억원 가량을 아직까지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자금난이 심각한 상황이다. 금호타이어측은 이에 따라 긴급 자금이 투입되지 않으면 공장이 서게 될지 모른다는 입장으로, 채권단에 긴급 자금을 호소하고 있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긴급 자금이 투입되지 않을 경우, 현재 비축돼 있는 원재료는 설 전에 바닥이 나 공장이 이에 멈출 수도 있다"고 걱정했다. 채권단은 경영주의 사채 출연과 노조의 워크아웃 동의를 제출이 선행돼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반면, 노조는 "채권단이 요구하는 동의를 사실상 '무조건 항복 문서'나 다름없는 것"이라며 "필요 요구하는

지도 모르는 채 어떻게 '백지 동의서'를 써 줄 수 있느냐"고 반발했다.

채권단 관계자는 "긴급자금 지원과 관련해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다"며 "하지만 채권단을 설득하려면 금호타이어가 먼저 뭔가를 보여줘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지역 경제계는 금호타이어가 노사간 임금 협상이 마무리된 지난해 10월 이후 북미와 유럽 등에서의 영업 활동 강화 등으로 해외주문이 늘어나 3개월째 풀 가동해온데다, 재고 정비 등 경쟁력 확보도 이뤄지고 있는 만큼 조기 회생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광주상의 관계자는 "기업을 살리기 위한 '워크아웃'이라면 공장은 돌리게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광우병 보도' PD수첩 무죄

### 검찰 "즉각 항소"...法·檢 갈등 확산

최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보도한 PD수첩 제작진 전원에게 무죄가 선고돼 법원과 검찰간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히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판결의 정당성을 두고 법조계에서 시작된 논쟁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관련 기사 3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문성관 판사는 20일 미국산 최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왜곡·과장 보도해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민동석 전 정경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조능희 PD 등 MBC PD수첩 제작진 5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작진이 미국산 최고기 수입업자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지않은 소(일명 '다우너 소')가 광우병에 걸렸을 가능성이 큰 것처럼 보도한 것이 미국 여성 아레사 빈슨이 인간광우병 의심진단으로 사망했다는 보도, 한국인이 유전자형으로 인해 광우병에 취약하다는 보도 등을 허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다우너 소 영상이 공개되고 사상 최대규모의 리콜이 있었으며 아레사 빈슨의 최종 사인이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수입협상을 체결한 이상 정부가 미국 최고기의 안전성과 도축시스템 실태 파악을 소홀히 했다고 평가했다"고 허위보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격양된 반응을 보이며 항소하겠다고 밝혀 감기갑 의원 무죄 판결 등으로 촉발된 법원과 검찰간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제작진의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했다는 게 법정에서 나타난 증거자료를 봐도 명백히 인정되고, 일부 사실은 피고인과 증인도 시인했다"며 "그런데도 법원이 전부 사실로 인정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런 가운데 진보와 보수 진영은 이날 판결에도 엇갈린 반응을 보였고, 한나라당과 야당도 각기 상반된 논평을 내 최근 법원의 일련의 판결을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을 거쳐 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PD수첩은 한미 최고기 수입협상이 타결된 직후인 2008년 4월29일 '긴급취재' 미국산 최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를 비판적으로 방영했으며, 정운천 전 농림장관과 미국산 최고기 수입판매업자 등은 허위보도로 제작진을 고소했다. /연합뉴스

세기보청기  
세기의 무대는 세계입니다!  
세계기스타·세기보청기  
1588-8489/011-22-8100